

# 멕시코 세제 개편 추진 현황[법인세 중심]

(2013.11.13)

멕시코시티사무소

## 1. 추진현황

- 멕시코 Pena Nieto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공평과세 및 추가세수 확보를 적극 추진
- 이와 관련, '13. 9. 8일 멕시코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'2014년 조세 개편법안'을 상정하였으며, 동 법안은 10. 17일 연방하원을 통과
- 한편, 동 법안은 '13. 10. 31일 연방상원에서 최종 14개항이 수정·의결 되어 연방하원으로 반송
  - 연방하원이 수정 없이 의결할 경우, 동 법안은 '14. 1. 1일자로 발효 예정

## 2. 주요 내용

### 가. 단일세율 법인세(IETU, Business Flat Tax) 17.5% 폐지

- '08년부터 기업의 투자촉진 및 기존 법인세 보완을 취지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,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으로 금번 세제 개편시 폐지될 예정
- 동 법안 폐지에 따른 세수부족을 감안하여 멕시코 정부는 법인세 공제대상 축소 예정

### 나. 법인세(ISR Empresarial)상 근로자 복리후생비용 공제한도 축소

- IETU(단일세율법인세)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공제한도를 53%로 조정
- 과거 소득세법 31조에 따른 근로자 복리후생비용(식료품비, 교통비, 사회보장청 납부금 등)은 과세표준 계산시 100% 공제가 가능

### 다. 현금예금세(IDE, Cash Deposit Tax) 폐지

- 자금세탁 방지 목적 등으로 한 계좌에 월 15,000페소(약 미화 1천불)를 초과하는 현금 입금시 초과금액에 대해 3%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
- ⇒ 위험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 예정

#### 라. 광산개발권 수입 분배 규정 신설

- 광산개발권 세수입에 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분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세수입중 20%는 연방정부, 80%는 지방정부에게 분배하되, 지방정부 배부액 중 광산이 소재한 시정부와 주정부의 지속가능 개발 기금 (Fondo para el Desarrollo Regional Sustentable)에 각각 62.5%와 37.5% 분배
- 또한, 주정부는 매분기마다 동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방 재무부에 보고

#### 마. IMMEX(수출용 부품에 대한 보세제도) 폐지

- 수출용 부품 수입에 대해 평균적으로 18개월간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유예해 주었던 IMMEX 제도 폐지
  - o 멕시코 정부는 IMMEX를 대체할 새로운 특혜제도 준비중

#### 바. 부가가치세 세율 단일화 및 과세 범위 확대

- '13년까지 미국과의 국경지역은 11%, 타지역은 16%를 적용하였으나, '14년부터 전국적으로 16%를 일률 적용
- 현재 영세율 적용중인 학비, 영화관람료, 껌, 애견사료, 모기지 이자, 개인 주택 판매세에 대해 16%의 부가세 부과여부 논의중

#### 사. 기타

- '14년 이후 차량 관련 공제대상금액 축소 : 렌트시 일일 200페소 (약 미화15불) 및 자동차 구입시 대당 130,000페소(약 미화1만불)로 공제대상금액 축소
- 식사비 100% 과세 포함
- 세후 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주주배당세 신설
- 자동차 연료와 살충제 관련 탄소세 신설